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경제, 중국】 중국, 美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對대만 무역 보복 착수(8.3)

【경제, 미국】 美 상원 '인플레이 감축법' 통과로 바이든
정책 탄력

【경제, 영국】 영란은행, 27년 만에 '빅스텝' 강행
(금리 1.25%p → 1.75%p)

【경제, 알제리】 아프리카 최대 가스 수출국 알제리,
중·러 주도 브릭스(BRICS) 가입 가능성

【곡물, 우크라이나·글로벌】 러-우 전쟁 이후 5개월
만에 흑해 항로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 출항

【천연가스, 인도】 유럽 에너지 위기에 따른 인도
천연가스 공급부족

【에너지, 일본·러시아】 러, 사할린2 신규 운영회사
설립 - 일본은 권의 유지 방침

【원유·제재, 이란·미국】 美, 이란핵합의 복원 모색
과정에서 원유 등 제재 위반 적발 조처 강화로 압박

【LNG, 호주】 호주 정부, 내수용 LNG 확보 위한
'가스 안정 매커니즘' 발동 여부 결정 준비 돌입



GVC 뉴스 더하기

- ① EU의 LNG 수요 감축 합의 등 에너지원 관련
최근 동향
- ② 美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에 따른 지정학적 경쟁 격화



GVC 기초상식

방위산업과 핵심광물(Critical materials)



GVC 돌보기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과 미래



GVC 전문가

도원빈(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화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GVC 소식통

- ①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안내
- ② 공급망 관련 상담회 개최 소식



더 알아보기

한국 제트엔진 산업의 시작, 그 숨겨진 이야기
(강석진 전 GE코리아 회장 **대외 최초 공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경제, 중국】 중국, 美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對대만 무역 보복 착수(8.3)

- 美 낸시 펠로시는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대만을 방문하여 총통과 면담 및 오찬,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8.2일). 이는 '97년 이후 25년 만에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
- 중국 정부는 美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하기 직전(1일 밤), 대만기업의 식품 3,200여 개의 품목 중 2,066개 품목(약 65%), 100여 개의 대만 식품업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단행
 - 3일부터 대만에서 자몽, 오렌지 등 감귤류 제품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등 일부 해산물 수입을 금지해 해당 품목 대만 농어민은 당장의 대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게 될 전망
 - * 대만 식품의 대중국 수출 비중: 감귤류(80%), 냉동 전갱이(50%), 갈치(100%) 등
 - 중국은 대만산 감귤에서 유해 물질이, 냉장 갈치·냉동 전갱이의 포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설명. 하지만 시기상,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것으로 분석됨
 - 또한, 30여 개 대만기업이 생산하는 과자와 음료 등 일부 가공식품 수입도 금지
- 현재 중국의 경제제재는 비관세 장벽을 동원한 농수산물과 일부 가공식품 수입 중단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전면 제재는 시행되지 않음. 또한 중국은 건설 자재, 반도체 웨이퍼 원료 등으로 쓰이는 모래의 대만 수출도 금지했으나, 이는 대만 전체 모래 수입 비중의 2%에 그쳐 영향은 미미
-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이 중국 전체 산업 공급망에서 대체가 어려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이 더 큰 제재를 선불리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 평가
 - 중국 경제학자인 훙하오는 “대만의 기업들은 주요 중국 투자자여서 대만을 제재하는 것은 돌을 들어 자기 발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

출처 : 로이터(22.8.2), 연합뉴스(22.8.3), 매일경제(22.8.8) 등 언론보도 종합

● 【경제, 미국】 美 상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바이든 정책 탄력

- 미국 상원은 8.7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 처리
 - 동 법안은 '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 투자하는 계획을 담고 있음
 - 이를 위한 자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포함
- 하원은 이번 주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공포할 계획
 -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축소판 개념
 -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꾸준히 설득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가결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중대한 정치적 승리라 평가받고 있음
- 민주당은 동 법안이 연방의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

출처 : 매일경제(22.8.8)

● **【경제, 영국】 영국 잉글랜드은행(BOE) 경기침체 각오하고 27년 만에 '빅스텝' 강행 (금리 1.25%p→1.75%p)**

- 8.4일 BOE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95.2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0.50%p를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 결정
- 영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4%에 달해 '82.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같은 달 미국(9.1%), 유로존(8.6%)보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임
- BOE는 올해 4분기 물가상승률 정점을 13.3%로 올려잡으며 내년 중반까지는 1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 사실상 경기침체가 현실화한 상황이지만 긴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 특히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긴축을 단행한 게 큰 영향을 미침. BOE가 연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며 수입 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임

출처 : 이데일리('22.8.5) 등

● **【경제, 알제리】 아프리카 최대 가스 수출국 알제리, 중·러 주도 브릭스(BRICS) 가입 가능성**

- 아프리카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알제리가 중국·러시아·브라질·인도·남아공 등의 신흥 경제 5개국 모임 '브릭스(BRICS)' 가입 관심을 표명
- 동맹국들과 규합해 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망을 넓히려는 미국,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지지 세력 확대를 꾀하는 러시아·중국 사이에서 알제리 대통령은 '브릭스가 전통 강국들의 대안으로 알제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알제리가 브릭스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TV 인터뷰를 통해 견해를 밝힘
 - 중국·러시아 주도의 브릭스는 지난 6월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에 테분 알제리 대통령을 초대할 바 있음
 - 알제리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
- 알제리는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의 가스관을 조이는 러시아를 대체할 중요 천연가스 공급자로 부상 중
 - '25년까지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가스 독립을 추진 중인 이탈리아는 총리가 직접 4월에 이어 7월에도 알제리를 방문해 가스 공급량 확대 협약을 체결

출처 : AFP통신('22.8.1), 한경('22.8.1) 등 언론보도 종합

● **【곡물, 우크라이나·글로벌】 러-우 전쟁 이후 5개월 만에 흑해 항로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 출항**

- 8.1일 현지시간 오전 9시 15분경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수출 선박이 남부 오데사항에서 출항했다고 튀르키예(터키) 국방부가 발표, 절박한 세계 식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튀르키예 국방부는 "옥수수를 실은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 라조니 호가 레바논 트리폴리를 향해 출항했다"고 밝힘
- 이번 출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가 흑해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해 항로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7.22일 이후 열흘 만에 이뤄진 출항으로, 튀르키예 국방부는 연말까지 최대 5천만t의 우크라이나-러시아산 곡물이 흑해를 통해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현재 흑해 항만에 16대의 배가 58만t의 곡물을 싣고 대기하고 있다고 밝힘
- 다만 합의가 이행됐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이를 파기할 만한 위협 요인이 산적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항만 사정을 고려 시 연말까지 수출량은 1,750만t 수준으로 기대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 전체 전선의 중심이 동부에서 점차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으로 옮겨오는 상황에서 남부 항만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수 있으며, 곡물 수출항으로 지정된 오데사항은 합의 이후에도 두 차례 미사일 공격을 받았음.
 - 러시아는 자국 곡물, 비료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국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합의는 파기될 것이라고 위협

- 우크라이나의 흑해 수출 항로가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식량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러-우 전쟁으로 치솟았던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 '08.10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8.8일 선박 2척이 추가 출항하여 지금까지 총 12척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싣고 흑해를 통해 출항함
 - 8.6일 UN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올해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8.6% 하락한 140.9포인트를 기록, 특히 곡물과 유지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출처 : 연합뉴스(22.8.1), 조선비즈(22.8.2/8.6), 연합뉴스(22.8.7) 등 언론보도 종합

● 【천연가스, 인도】 유럽 에너지 위기에 따른 인도 천연가스 공급부족

- 8.1일 인도 가스공사(GAIL)는 글로벌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 천연가스 가격 18% 인상
- 이는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난에 대응하고자 대체국의 LNG 수입을 늘린 점이 인도의 공급에도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올 겨울, 유럽은 심각하게 연료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응책으로 천연가스 신규공급처를 확보 중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유럽은 '21년 러시아로부터 1,550억㎥의 천연가스를 수입했으며,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함. 유럽은 올해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도를 1/3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출처 :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8.8)

● 【에너지, 일본·러시아】 러, 사할린2 신규 운영회사 설립 - 일본은 권익 유지 방침

- 러시아 정부는 8.5일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사할린2'의 신규 운영회사를 설립 → 기존 운영회사 '사할린 에너지'에 출자 중인 외국기업은 한 달 이내에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신규 회사의 주식 취득 여부를 러시아 정부에 신청해야 하는 상황
 - 기존 운영회사인 '사할린 에너지'는 영국령 버뮤다 제도에 거점을 둔 외국기업이었으나, 신규 회사는 사할린 거점의 러시아 기업으로 기존 운영사 사할린 에너지 대표가 신규 회사의 대표를 맡음
 - 기존 사할린 에너지는 가스프롬이 약 50%, 영국 쉘이 약 27.5%, 일본 미쓰이물산이 12.5%, 미쓰비시상사가 10% 출자 중으로, 출자 유지를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의 조건에 동의해야 하나 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를 수용하여 신규 운영회사의 주식 취득을 신청해도 러시아 정부의 심사에서 주식 취득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일본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중요한 사할린2 권익 유지가 방침
 - 사할린2는 연 1,000만 톤의 LNG를 생산하여 이 중 약 600만 톤을 일본으로 수출
 -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 기업에 10% 이상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사할린2의 경우 신규 투자가 아닌 기존 권리의 보전 조치로 판단
-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도 신규 운영회사 설립에 관한 8.2일자 러시아 정부의 정령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 및 파트너 기업과 협의해 적절히 대응을 추진할 방침
 - 양사 모두 사할린2 출자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이 관건이 될 전망으로, 미쓰이물산 야스나가 회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한다면 출자 단념도 있을 수 있다"고 밝힘(8.5일)
- 사할린2 사업에서의 권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일본 에너지 기업들과의 LNG 공급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장 LNG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 정부가 공급계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출처 : 일본경제신문(22.8.6)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 **[원유·제재, 이란·미국] 美, 이란핵합의 복원 모색 과정에서 원유 등 제재 위반 적발 조처 강화로 압박**

- 7.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밀거래한 의혹을 받는 중개업체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 미 당국은 원유 중개업체들이 이라크와 이란 사이 해역에서 선박 간 석유 수송을 통해 원산지를 속여 글로벌 원유 시장에 판매한 의혹을 조사 중
 - 미 당국자들은 이라크 태생의 영국인 '살림 아흐메드 사이드'가 소유한 AISSOT(AI-Iraqia Shipping Services & Oil Trading)가 다른 업체와 함께 이란산 석유 밀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사이드는 WSJ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라크와의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부인'
 - 불법 환적되어 이라크산과 뒤섞인 이란 원유 상당량은 아시아지역 기업들이 구매했지만, 서방 기업인 엑손 모빌과 코크 인더스트리즈, 셸 등도 연관되어 있다고 WSJ은 입수한 문건과 전직 직원들 발언을 인용. 다만 해당 서방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제재를 위반한 혐의는 현재까지 없다고 WSJ은 덧붙임
-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제재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해석되는데, 한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핵합의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재 위반 적발 조처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 '15년 이란은 미국·중국·프랑스·독일·러시아·영국과 함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對이란 제재를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했으나 트럼프 전 美대통령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협정이 철회되며 '18년도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음

- 한편 EU의 중재로 8.4일~8일 기간 진행된 이란핵합의 복원 최종안 관련 미국과 이란 양측의 긍정적 분위기에 타결에 대한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8.9일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유럽向 원유 공급 중단 소식에도 소폭 하락

출처 : WSJ(22.7.31), 뉴시스(22.8.1), 연합뉴스(22.8.1), 아시아경제(22.8.9), 이투데이(22.8.10) 등 언론보도 종합

● **[LNG, 호주] 호주 정부, 내수용 LNG 물량 확보 위한 '가스 안정 메커니즘' 발동 여부 결정 준비 돌입**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국제 가스 가격 급등으로 호주가스업체들이 내수용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지속 시 '23년 호주 내 천연가스가 56페타줄(약 20만 5,000톤), 수요 대비 약 10%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 이에 ACCC는 정부에 '호주 내 가스 안정 메커니즘'(ADGSM*) 발동 권고
 - * ADGSM은 호주 정부가 '17년 도입한 LNG 수출업체들이 가스를 내수용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 러·우 전쟁 여파로 러시아산 가스공급이 크게 감소하며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호주 가스 생산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어 자국 내 소비물량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 호주 석탄화력발전소 노후화로 가스 화력발전 수요 증가도 예측되는 상황
- 이에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부 장관이 ADGSM 발동 여부 결정을 위한 통지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밝힌 바, 통지서 수령 기업은 생산량, 수출량 및 관련 계획, 시장 전망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함
- 다만 ADGSM이 실제 수출 규제로 이어진 전례는 없으며 이 제도는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기업들과 협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
 -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애널리스트 샘 레이널드는 'LNG 수출 제한은 장기계약으로 팔리지 않는 물량에 한해 이뤄질 것이기에 70~80%를 장기계약으로 구매하는 일본과 한국, 중국 등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 [일본의 호주산 LNG 의존도 40%, 한국의 호주산 LNG 의존도 18%]

출처 : 연합뉴스(22.8.1), 이데일리(22.8.2), CNBC(22.8.7) 등 언론보도 종합

GVC 뉴스 더하기 ① : EU의 LNG 수요 감축 합의 등 에너지원 관련 최근 동향

※ 올 겨울 EU의 가스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이 러 천연가스 소비량 15% 감축에 합의하는 등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함. EU를 포함하여 LNG를 둘러싼 세계 주요 권역 국가들의 동향을 살펴보자

● EU 회원국, 자발적으로 천연가스 수요 15% 감축하기로 합의

- (개요) 집행위가 7.20일 제안한 가스감축 규정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8.5일 헝가리와 폴란드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에서 승인되어, 공식 발효 예정임**
 - '23.5월까지 연장 여부 결정 계획. 감축 시 가정, 보건, 국방 등 필수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의
- (배경) 이번 합의는 가스프롬이 노드스트림 가스 공급을 추가 감축한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미 12개 회원국이 러시아 가스의 영구 및 일시적 중단을 겪어 EU집행위는 공급 영구 중단 또한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회원국간 연대·LNG 수입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

영구 중단			일시 중단		
국가	주요에너지 파트너 기업	가스량	국가	주요에너지 파트너 기업	가스량
폴란드	• PGNiG	98 TWh	프랑스	• Engie	117 TWh
네덜란드	• GazTerra	39 TWh	이탈리아	• ENI S.p.A 등	280 TWh
그리스	• DEPA Public Gas Co. 등	35 TWh	독일	• Uniper GlobalCommodities 등	369 TWh
불가리아	• Bulgarian Energy Holding	28 TWh	체코	• RWE Supply & Trading 등	88 TWh
덴마크	• DONG Naturgaz A/S	27 TWh	슬로바키아	• SPP	84 TWh
핀란드	• Fortum 등	25 TWh	오스트리아	• OMV AG	67 TWh

(자료) bruegel

- (합의 내용) '22.8.1일~23.3.31일 동안 **회원국이 각각 선택한 조치에 따라 지난 5년간의 평균 소비량 대비 가스 소비 15% 감축 목표**. '연합 경보' 발동 시 가스 수요 감축은 의무화 됨
 - (감축 의무화) 집행위는 상당한 가스 부족 및 수요 폭증 시 혹은 최소 5개 회원국이 국가경보를 선언하고 집행위에 요청할 시 '연합 경보'를 제안 가능하며 이사회는 집행위 제안에 대응 및 회원국 동의 통해 경보 발동 가능
 - (의무 면제) 아일랜드나 몰타 등 타 회원국 가스망과 연결돼 있지 않거나, 유럽 전력망에 동기화되지 않고 전기 생산 시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의무 면제' 가능. 또한 △가스 저장 목표 초과, △핵심 산업이 가스에 크게 의존하거나, △전년도 가스 소비가 최근 5년 대비 8% 이상 증가한 경우 등에도 고려

● EU의 대응 방향

(1) 남부 가스 회랑(SGC) 확장 발판 마련

- 7.18일 EU집행위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27년까지 천연가스 공급 두 배 확대, △아제르바이잔 내 해상 풍력,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가스 협력과 EU의 기후책임 확인 등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
- 현재 80억㎥인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향후 연 200억㎥까지 증가, 내년 공급량도 120억㎥에 달할 전망

< 아드리아 횡단 가스관 (TAP, Trans-Adriatic Pipeline, 노란실선) >



* 남부 가스 회랑(SGC, Southern Gas Corridor)은 카스피해 지역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발칸반도를 연결하는 약 3,200km 길이의 가스관 사업임. SCP, TANAP, TAP 등 3개 구간으로 구성 (자료: Euractive, Wikip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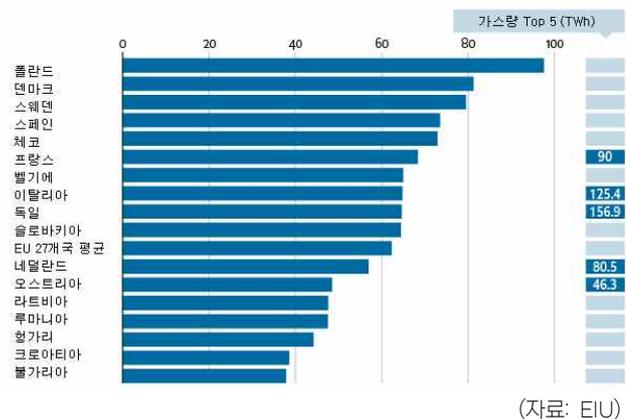
(2) 미국, 노르웨이산 가스 수입 확대

- (미국) 미국 등에서 LNG 수입을 전년비 56% 늘려 총 가스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3 이상으로 확대한 상태로 6월말 기준 미국 LNG 수입량은 월 50억㎥ 상회
 - '22년 상반기 유럽이 수입한 LNG의 47%가 미국산으로, 러-우 전쟁 이후 미국의 對유럽 LNG 수출이 늘어나 미국은 '22년 상반기 최대 LNG 수출국, 작년 하반기 대비 일평균 수출량이 12% 증가 (美 에너지정보청)
- (노르웨이) EU 전체 가스 소비량의 약 20%를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던 상황으로, '22년 중 전년 대비 8% 증가한 1,220억㎥로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
 - EU는 전체 가스 소비량의 약 4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왔음

(3) 회원국 간 양자협정 체결 통한 가스 연대 강화

- 겨울 대비 가스 비축이 절실한 현재, 평균 가스 저장률은 62% 수준으로, 독일(64%) 및 6개 회원국 (50% 미만)의 저장률은 올 겨울 목표인 8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인접 회원국에 가스를 보내기 위해 정부 간 양자 협정 체결이 필요, 독일·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이탈리아·슬로베니아 등 8개국 간 6개 협정 체결
 - 이밖에 독일-체코 간 협정 겨울까지 체결 전망이며 독일-폴란드, 이탈리아 간 추가 협정 추진 중

〈 EU 가스 저장고 확보량 - '22.7.11 기준 〉



● 향후 전망

- EU는 5월 발표한 2,100억유로 규모의 RePowerEU 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처 다양화, 에너지 다각화 등을 추진 중이나 러시아의 추가 LNG 공급축소 가능성이 존재, 수급불균형은 심화될 전망
 -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7월말 유럽向 노르드스트림1 가스공급량을 터빈 정비 문제 때문이라며 전체 용량의 20% 수준까지 감축, EU집행위는 정당한 기술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
 - 러 가스프롬 7월 일일 가스 생산량은 7억 7,400만㎥로 '22.6월 대비 14% 감소, 이는 '08년 이후 최저 수준
- LNG 수급불균형은 EU 권역 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여 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의 긴축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권역 내 LNG 수급불균형이 세계 시장으로 파급되어 글로벌 LNG 가격 상승 역시 우려됨
 -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화주들이 위약금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등에서 높은 가스 가격을 지불하는 유럽으로 우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컨설팅 기업 유라시아 그룹은 “유럽이 신흥 시장 가격 인상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미 남아시아 에너지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



GVC 뉴스 더하기 ② : 美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에 따른 지정학적 경쟁 격화

※ 7월 말 美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527억 달러(약 69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통과되고 8.9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되어 발효만 남겨둠. 법안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자

● 법안 주요내용

-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반도체 생산 지원 및 과학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CHIPS) and Science Act)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527억 달러(약 69조 원)와** 향후 5년간의 과학연구 지원 1,700억 달러(약 222조원)를 포함한 **총 2,800억 달러(약 366조 원) 규모**
- 반도체 산업 지원 파트는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중심으로 R&D, 국방부 반도체 허브, 국제협력, 인력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

항목	정부 부처	세부 내용	지원액 (억 달러)
제조 (설비투자)	상무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조립, 연구 개발용 시설 건설, 확장, 확대화 지원	390 (약 51조원)
R&D	상무부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의 첨단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Manufacturing USA), 반도체연구소, 계속 R&D 지원	110 (약 14조원)
안보	국방부	신기술 및 인력 강화를 위한 국방부 주도 반도체 연구 허브 (Microelectronics Commons) 사업 지원	20 (약 3조원)
보안·통신	국무부, 수출입은행 등	국제 정보통신 기술 보안, 반도체 공급망, 안전한 통신 기술 개발 지원	5 (약 0.7조원)
직업 훈련	-	반도체 인력난 해결과 인재 양성 위해 5년간 국가과학재단(NSF) 지원	2 (약 0.3조원)
합 계			527 (약 69조원)

- 그 외 반도체 설비 건설 및 장비·특수공작기계 등에 대한 **25% 투자세액 공제, 지원금 수혜기업의 비우호국 내 신규 투자 제한*** 등

* 지원금 수혜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비우호국(foreign entities of concern)에 반도체 생산시설 신축·증설 제한 및 비우호국과의 거래 내용 고지 의무 부과. 단, 해당 국가 공급을 위한 성숙(legacy) 공정은 제한적 허용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TI(300억 달러), 인텔(200억 달러), 삼성(170억 달러) 등 이미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한 기업을 포함해 **향후 수년간 미국 반도체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현재 발표된 약 1,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이 향후 5~7년간 실현 될 경우 미국 제조업 자본지출에 +2.7~3.8%p의 효과가 예상되나, 최종수요보다는 생산 지원에 집중되어 있기에 경기부양 및 고용 증대는 일시적일 가능성 (BofA)
 - 일각에서는 규제강화에 따른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 난항, 보조금 의존 확대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 (UBS, FT 등)
- 동 법안은 **중국, EU 등의 반도체 성장을 억제하고 미국의 세계 반도체 점유율 확대가 목적**이나, 산업 성장보다 **주요 권역·국가간 반도체 보조금을 통한 지정학적 경쟁 격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큼
 - Intel의 CEO 팻 겔싱어 “지난 50년간 석유의 위치가 지정학적 요소로 작용해온 것처럼, 앞으로의 50년은 ‘칩 제조공장(fabs)’ 위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
 -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자금 지원 규모는 미국 CHIPS Act의 3배인 1,500억 달러 정도로 추정, 유럽도 '30년까지 EU 반도체 점유율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최대 500억 유로 지원 법안(EU Chips Act) 발표

GVC 돋보기 :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과 미래

※ 지난 7월 19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서 이륙에 성공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되게 되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자부심 KF-21에 대해 살펴보자.
 *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에 이어 한국이 성공

● KF-21 사업 소개 및 개발 현황

- 대한민국 공군의 장기 운용 전투기(F-4, F-5)를 대체하기 위해 다목적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와 국제공동개발 형태로 진행) 공군 전투기 전력의 약 30%를 담당 예정
- '22년 7월 19일, 약 33분간(15:40 ~ 16:13) 첫 비행에 성공하여 방위사업청은 공식적으로 비행 성공을 발표하는 등 순조롭게 개발 진행 중

제품 형상	사업 일반 현황
 <p>< 초도 비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주도 한/인니 국제공동개발 및 해외기술협력업체 참여 ▪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한 단계별(Block I/II) 개발 ▪ 개발대상 : 항공기체계, 훈련체계, 군수지원체계 ▪ 사업형태 : 국내업체 주관 국제공동연구개발 ▪ 사업기간 : 2015~2026년 ▪ 사업예산 : 약 8.8조원 - 정부 60% 국내·외 업체투자 20% 및 인도네시아 투자 20% 포함

● KF-21 개발 기대효과

- 국내업체 참여 확대로 국내 경제 활성화 및 기술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주요 핵심부품의 지적 재산권(기술소유권 등) 확보로 기술적 독립적 향상을 도모함
 - (경제적 파급효과) ① 생산 유발효과 약 24.4조 원, ②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5.9조 원, ③ 기술적 파급효과 약 49.5조 원, ④ 취업 유발효과 약 11만 명 예상 (출처: '17.7월 무기체계 연구원)
 - (고용창출 효과) 사업 착수 이후 약 1만 명 이상의 직접 고용 창출로 실업률 완화에 기여
 - (국산화 품목 확대) 국산화 품목 발굴 및 반영 노력을 통한 양산단계 목표 국산화율은 약 65%

● 핵심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 美의 기술이전 회피 4대 핵심부품인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 RADAR), 통합전자전체계(EW SUIT), 탐색추적장치IRST), 표적추적장치(EO TGP)를 포함한 항공전자 장비 등 85종의 국산화 진행 중
- 소재부품 전량 해외 수입 의존, 항공산업 원가 경쟁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압출재, 복합소재, 고강도 볼트 등의 소재 국산화 추진으로 KF-21 등 군용 항공기 적용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 제조 공정 효율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시제작 단계 시, 확보한 인프라의 효과 분석을 통해 양산 착수 전 생산라인 최적화 도모
- 생산 자동화 장비 구축 및 공정 개발로 항공기 단가 절감 기대
- 수출 잠재 국가(동남아 등)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마케팅을 통해 향후 400대 이상의 수출 추진

* 시장조사기관 Teal Goup 분석 결과, '25~'50년 사이 485대 판매 예측(2016)



(시제작 사진 : 방위사업청)



GVC 전문가 : 도원빈(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화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과 원화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① 동향, ② 변동요인, 그리고 ③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자.

● 【동향】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얼마나 변했는가?

- 2021년 평균 대비 현재 가격을 보면 에너지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금속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하였고, 곡물 가격은 많이 안정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대를 돌파하면서 14.1% 상승

〈 2021년 평균 대비 현재 가격 증감률 〉

구분	원유 (달러/배럴)	천연가스 (달러/MMBtu)	석탄 (달러/톤)	철광석 (달러/톤)	구리 (달러/톤)	알루미늄 (달러/톤)	니켈 (달러/톤)
'21년 평균가	70.9	3.718	136.3	159.4	9,292	2,485	18,452
현재가	94.3	7.906	361.0	107.1	7,871	2,416	22,216
증감률(%)	▲33.1	▲112.6	▲164.8	▼32.8	▼15.3	▼2.8	▲20.4

구분	밀 (센트/부셸)	옥수수 (센트/부셸)	팜유 (RM/톤)	원/달러	원/유로	원/엔	원/위안
'21년 평균가	702.0	581.7	4,461	1,144.9	1,353.6	10.425	177.5
현재가	773.0	605.5	4,128	1,306.3	1,330.5	9.663	193.2
증감률(%)	▲10.1	▲4.1	▼7.5	▲14.1	▼1.7	▼7.3	▲8.8

자료 : Bloomberg, 현재가는 8.8일 기준

● 【변동요인】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왜 변하는가?

-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은 품목별로 다양하지만, 원자재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가격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발
 - 세계 경제 둔화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 탄소중립 정책이 주요국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하락, 금속과 농산물 가격은 상승할 전망
- 원화환율의 변동요인은 크게 3가지가 있음
 -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원화 약세가 지속
 -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원화 가치의 하락이 가속

〈 원자재 품목별 러·우 세계 공급 비중 및 중국 세계 수요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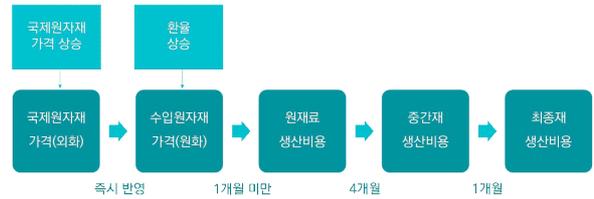
자료 : BP, USGS, World Steel Association, Nornickel, nrcan, USDA

● **【경제적 영향】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가?**

- 첫째,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함

-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국내기업 생산비용은 전(全) 산업 기준 2021년 평균 대비 7.92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가공단계(원재료→중간재→최종재)별로 생산 비용 파급효과가 전이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최종재 생산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약 5개월의 시차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생산비용 파급경로 및 단계별 시차 〉



자료 : 저자 계산

〈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의 생산비용 파급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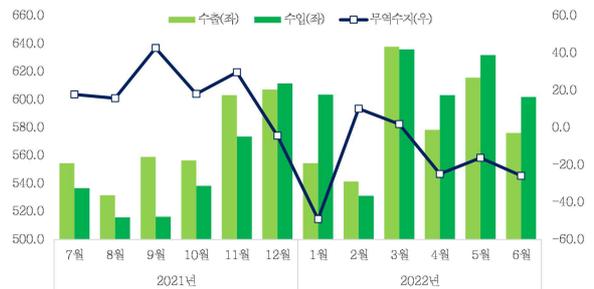
구분	에너지가격 파급효과	금속가격 파급효과	농산물가격 파급효과	환율 파급효과	전체 파급효과 (%)
제조업	6.052	-1.373	0.033	4.344	9,611
서비스업	2.353	-0.083	0.014	1.516	4,069
전산업 평균	5.230	-0.699	0.022	2,837	7,928

자료 : 2021년 평균 대비 8.8일 가격을 기준으로 저자 계산

- 둘째, 우리나라 수출은 소폭 증가하지만,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

- (수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각각 10% 상승했을 때, 수출단가는 0.04% 상승하지만 수출물량은 0.01% 감소하여 수출금액은 0.03% 증가에 그침
- (수입)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각각 10% 상승했을 때, 수입단가는 4.9% 상승, 수입물량은 1.4% 감소로 이어져 수입금액은 3.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월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셋째,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이 충격을 받음

- 수입원자재 가격 및 원화환율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올해 4분기까지는 등락을 반복하겠으나, 그 여파는 10개월 내에 대부분 소멸
-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전망에 따르면 러-우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 대비 양호한 편임

〈 주요 국제기구의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전망기관	IMF			OECD			World Bank		
	'22.1월	'22.7월	조정폭	'21.12월	'22.6월	조정폭	'22.1월	'22.6월	조정폭
전세계	4.4	3.2	-1.2	4.5	3.0	-1.5	4.1	2.9	-1.2
미국	4.0	2.3	-1.7	3.7	2.5	-1.2	3.7	2.5	-1.2
유로존	3.9	2.6	-1.3	4.3	2.6	-1.7	4.2	2.5	-1.7
한국	3.0	2.3	-0.7	3.0	2.7	-0.3	-	-	-
중국	4.8	3.3	-1.5	5.1	4.4	-0.7	5.1	4.3	-0.8
일본	3.3	1.7	-1.6	3.4	1.7	-1.7	2.9	1.7	-1.2

GVC 소식통 ①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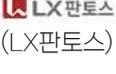
- (사업내용) 선박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박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박(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모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삼성 SDS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안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박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박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벌크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기업 벌크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드 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td> <td>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륙운임: 수출기업 부담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포스코수출물류합적플랫폼 (www.steel-n.com) 사업안내 바로가기 ① 플랫폼 회원가입 ② 가입승인(포스코) ③ 합적 신청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광양항, 마산항, 평택항</td> <td>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td> </tr> </table>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현대글로벌비스)	Breakbulk화물 수출 회원사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바로가기																			
		[항공운송]																			
 (대한항공)	항공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수출 중소제조업체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 품목: 일반 화물 (특수화물 불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마감</th> </tr>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컨테이너 화물 수출 회원사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8~9월 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 지원 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 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 단, TCR 노선은 40피트 컨테이너만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r> <td rowspan="2">TCR</td> <td rowspan="2">인천/평택</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러시아 모스크바</td> </tr> <tr> <td>TSR</td> <td>부산</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모스크바 인근</td> </tr>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모스크바 인근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모스크바 인근																		
[물류 보관]																					
 (칼트로시스)	컨테이너 화물 물류센터 보관 희망 기업	[부산신항 물류센터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th> <th>서비스 내용</th> <th>여부</th> <th>비고</th> </tr> <tr> <td>1</td> <td>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td> <td>불포함</td> <td>수출업체가 포워드/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td> </tr> <tr> <td>2</td> <td>물류센터 상하차</td> <td rowspan="2">포함</td> <td rowspan="2">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td> </tr> <tr> <td>3</td> <td>물류센터 보관</td> </tr> <tr> <td>4</td> <td>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td> <td></td> <td></td> </tr> </table> ※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드/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드/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해상화물) ☎ 02-6000-7617/5754 / logistics01@kita.or.kr
 (항공화물) ☎ 02-6000-5754 / hjo117@kita.net



GVC 소식통 ② : 공급망 관련 상담회 개최 소식

● 한-대만 바이오·의료 수출상담회

- 대만 정부의 6대 핵심 전략산업인 헬스케어 및 바이오헬스 현지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
 - 일시/장소 : 10월 24일(월)~28일(금) / 온라인
 - 신청기한 : 8월 19일(금) 限
 - 참가신청 : [한-대만 바이오·의료 수출상담회\(클릭\)](#)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1)사업신청서 작성하고 2)기업 중문 혹은 영문 카탈로그 첨부하여 업로드
 - 참고사항 : 8월 말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 안내 예정
 - 문의처 : KOTRA 타이베이무역관 이창익 차장 ☎ (+886)-2-2725-2324(300) / kotra.mkt@gmail.com
KOTRA 타이베이무역관 장안기 차장 ☎ (+886)-2-2725-2324(115)

● Medical Korea in Mongolia

- 몽골 최대 규모 '몽골 의료산업 박람회 연계 한국기업 홍보관을 운영, 전시상담회 및 세미나 참가 지원
 - 일시/장소 : 10월 6일(목)~8일(토) / 몽골 Misheel Expo 전시장
 - 전시규모 : 몽골 국립 및 민간병원,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사 60개사 및 해외 관련사 15개 내외
 - 신청기한 : 8월 19일(금) 限
 - 참가신청 : [Medical Korea in Mongolia\(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 (첨부1)참가신청서, (첨부2)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하고 담당자 anujin@kotra.or.kr로 송부
 - ※ 회사로고, 제품 소개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등 추가서류 함께 제출 요망
 - 참고사항 : 한국 홍보관 10개사 규모 운영 예정, 부스비는 무료이나 현지 출장비 등 기업 부담 필요
 - 문의처 : KOTRA 올란바토르무역관 Anujin 대리
☎ (+976)-77110140 / anujin@kotra.or.kr

● K-Global@ Silicon Valley 2022

- 우리 ICT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현지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일시/장소 : 11월 7일(월)~8일(화) / 실리콘밸리
 - 신청기한 : 8월 22일(월) 限
 - 참가신청 : [K-Global@ Silicon Valley 2022\(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 (첨부)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하고 [회사/제품 카탈로그](#)와 함께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 신청서 작성 시 바이어 매칭을 위해 품목 설명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참고사항 : ICT 전 분야 우리 기업 참가 가능, 시장성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된 기업 대상 안내 예정
 - 문의처 : KOTRA ICT융복합팀 류태현 과장 ☎ 02-3460-7472 / th.ryu@kotra.or.kr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 김옥진 차장 ☎ (+1)-408-432-5008 / renew@kotra.or.kr



더 알아보기 : 한국 제트엔진 산업의 시작, 그 숨겨진 이야기 (대외 최초 공개)

※ 강석진 전 GE코리아 회장님이 직접 추진하신 한국 첨단제트엔진 산업의 숨겨진 이야기를 한국방위 산업학회와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통해 최초로 밝히셨음. 이에 인터뷰 내용을 원본 그대로 공개함

- **지난 36년간 국가보안상 극비에 부쳤던, 대한민국에서 첨단제트엔진 산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통해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시 직접 추진하였던 소중한 한국방위산업 역사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무엇보다 제가 존경하는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님께서 한국의 방위산업을 위해 큰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싶었습니다.

- **제트엔진사업은 80년대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었을 텐데 어떻게 추진된 것인가요?**

80년대 초중반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전두환 前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이병철 회장을 만나 '삼성에서 공군전투기의 제트엔진 국산화를 책임져 달라'는 방위산업 임무를 맡겼고 이병철 회장이 첨단제트엔진 국산화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비서실에서 조사해 보니 모든 미국 공군전투기의 제트엔진은 GE에서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병철 회장이 저에게 단둘이서 만나자며 비밀회동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설명하며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된 삼성그룹을 GE에서 도와달라고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GE 코리아 사장 강석진인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도와야겠다는 애국심으로 GE의 제트엔진 생산 기술을 삼성에 제공하도록 GE의 항공엔진 사업부를 설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접촉한 GE의 항공엔진 사업부의 최고경영자는 '제트엔진 제조기술은 세계에서 GE만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로서 외부에는 제공한 적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어느 기업이나 국가에 제공할 수 없는 것이 GE의 기본정책 방침'이며 '美 공군의 제트전투기 생산 기술의 보안은 美 국방성의 기본정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병철 회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병철 회장은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나 대통령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고, 무조건 삼성이 책임지고 GE를 설득하여 제트엔진 기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다시 저를 만나자고 요청하였으며 단둘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하며 부탁하였습니다.

- **그 당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을 돕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이병철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을 들으면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GE의 최고경영자와 美 국방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 GE의 제트엔진 역사와 美 공군의 제트전투기 개발 역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은 GE(General Electric)의 출발 역사였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여 1878년에 세운 GE사는 인류 최초로 전기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전기의 생산을 위해 수력 발전에서 시작하여 화력발전과 가스터빈 발전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GE의 과학 기술자들은 발전용 가스터빈을 소형화하여 공군의 전투기에 프로펠러 엔진 대신에 장착하면 초고속 성능의 전투기가 탄생할 것이란 생각에 시범적으로 GE의 소형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한 공군전투기를 실험 제작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성공하여 최초의 美 공군 제트전투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제트전투기의 탄생은 1950년이었으며 놀랍게도 6.25 한국전쟁이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1950년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소련제 탱크와 전투기로 무장한 북한 공산군은 6월 25일 예고 없이 남침하였으며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남한은 3개월도 안 되어 경남과 낙동강 이남의 경북을 제외한 전 국토를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남은 영토도 한 달 이내에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실험 비행에 성공한 美 공군의 제트전투기가 최초로 한국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GE가 제작한 제트엔진을 장착한 美 공군 제트전투기는 프로펠러형 소련제 북한군 전투기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하여 순식간에 제공권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상의 북한군 탱크들도 모조리 파괴하였습니다. 북한군은 전투력을 잃고 긴급히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라고 생각한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을 과감히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북한의 전투 병력은 대부분 한국의 남쪽 전투지역과 낙동강 인근 전선에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2일 이내에 서울을 탈환하고 일주일 이내에 북한의 수도 평양을 점령하였습니다. 유엔군은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유엔군이 함경북도를 제외한 북한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은 최초의 美 공군 제트전투기의 참전으로 북한군의 공중전과 지상전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자료: 대한민국 국방부)

이를 계기로 GE의 제트엔진사업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美 공군은 제트전투기가 주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트전투기가 위기의 한국전쟁을 승전으로 이끈 결과, 美 공군의 전투기와 수송기 대부분이 제트전투기로 대체 되었습니다. 나아가 군용뿐만 아니라 민간 여객기와 수송기들도 대부분 GE의 제트엔진을 사용하게 되어 GE의 항공엔진 사업은 사내 중심사업이 되었으며 세계 제트엔진 시장 점유율 60~70%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첨단제트엔진 산업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❶ 한국에 GE 항공엔진 사업부와 美 공군 제트전투기의 역사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❷ 이를 위하여 한국공군이 사용 중인 미국산 제트전투기에 탑재된 GE 제트엔진 생산기술을 삼성에 제공하여 한국공군 제트전투기의 엔진을 삼성에서 생산하게 하는 것은 GE 항공엔진 사업의 소중한 역사기념 사업이 될 수가 있으며, ❸ 한국전을 승리로 만든 美 공군 최초의 제트전투기의 역사기념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썸 웰치 회장에게 보내드리고 국제전화로 설명하였더니 썸 웰치 회장은 큰 감동을 받았으며 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썸 웰치 회장에게 GE의 항공엔진 사업부와 美 국방성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썸 웰치 회장은 직접 그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썸 웰치 회장은 美 국방성과 GE 항공엔진 사업부 경영진들이 나의 제안에 동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타국으로의 방위산업의 기술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美 국방성의 동의를 얻은 것은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될 듯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전하자 굉장히 너무나 감동하며 기뻐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썩 웰치의 최종 결정으로 1985년경 삼성과 제트엔진 제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삼성 항공산업이 출발하였습니다. GE와 美 국방성이 군용 제트엔진생산 기술을 해외 타국으로 이전한 것은 전례가 없었으며 이것이 처음이며 마지막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제트엔진 제조사업과 제트전투기 제조사업의 역사적인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GE는 삼성에 제트엔진 생산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GE의 항공엔진 전문 기술자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삼성항공(추후 삼성테크윈으로 사명 변경)의 창원공장에 5년간 상주시키고 GE의 첨단 방위산업 기술을 제공하면서 한국인 전문 엔지니어들을 교육하였으며 당시 F4 공군 전투기의 제트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트전투기 엔진 국산화의 역사적인 사업을 출발시킨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1987년에 타계하셨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첨단산업화와 선진화의 첫 출발을 마지막으로 이루어 놓고 가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추후 한국은 훈련용 제트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설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은 깊이 있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훈련용 제트전투기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를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였습니다. 금년 7월 19일에는 세계 8번째로 자체 개발한 한국산 초음속전투기 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하였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입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에 아시아 최초의 제트엔진 생산국가로 출발하여 약 36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8번째의 초음속전투기 생산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첨단엔진 산업, 나아가 방위산업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음 호에 자세히 다뤄서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석진 전 GE코리아 회장 약력**



강석진 전 GE코리아 회장
화가, 시인, 경영학박사

- 1964년 중앙대 경제학과 졸업
- 1966년 연세대 대학원(공업경영학 석사) 졸업
- 1987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 2015년 네덜란드 트윈테대학 경영학 박사
- 1970년 뉴욕 미국 투자금융회사, 부사장
- 1974년 GE 극동구매소장
- 1978년 GE의 아시아지역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 담당 이사
- 1979~2001년 GE코리아 총괄대표(사장, 회장)
- 서울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 서강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 이화여대 경영대학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 CEO컨설팅그룹 회장(2002.12 ~)
- (사)융합상생포럼 이사장(2015 ~)
-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고문(2022 ~)
- 대한민국 회화제 대표 (화가)
- 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시인)

☞ 인터뷰 내용을 최대한 수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내보내는 바이며, 대한민국에 첨단제트엔진 기술 이양에 힘써주신 점과 대한민국 제트엔진 산업의 시작과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를 저희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통해 최초로 대외에 밝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8. 10. 수)

[환율]

	'20.12.31	'21.12.31	'22.7.31	'22.8.5	'22.8.8	'22.8.9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99.10	1,298.30	1,306.40	1,304.60	-0.14%	+9.74%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99.00	1,297.70	1,305.70	1,303.70	-0.15%	+9.55%
₩/CNY	166.04	186.51	193.35	193.83	193.24	193.07	-0.09%	+3.52%
₩/Y100	1,051.19	1,032.48	979.94	973.75	964.49	965.80	+0.14%	-6.46%
Y/U\$	103.34	115.14	132.57	133.33	135.45	135.08	-0.27%	+17.32%
U\$/EUR	1.2279	1.1318	1.0247	1.0224	1.0179	1.0202	+0.23%	-9.86%
CNY/U\$	6.5305	6.3681	6.7419	6.7463	6.7620	6.7534	-0.13%	+6.05%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8.8 (전일)	'22.8.9				
					전일(8.8)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94.31	94.31	-	▲44.3 +88.4%	▲17.2 +22.3%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08.80	108.80	-	▲21.5 +24.7%	▼12.0 -9.9%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835.00	7,971.50	▲136.5 +1.7%	▲216.0 +2.8%	▼1,720.5 -17.8%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435.50	2,488.00	▲52.5 +2.2%	▲536.5 +27.5%	▼318.0 -11.3%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1,725.00	21,355.00	▼370.0 -1.7%	▲5,448.0 +34.2%	▲430.0 +2.1%

[반도체]

	'20	'21	'22.5	'22.6	'22.7	8.4	8.5	8.8	8월(~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42	3.37	3.11	2.91	2.91	2.89	2.91
(YoY)	-21.9%	+8.0%	-23.6%	-25.4%	-31.6%	-35.1%	-35.1%	-35.7%	-30.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25	8.01	6.83	6.56	6.56	6.56	6.56
(YoY)	+7.0%	+32.8%	+33.7%	+23.0%	+1.4%	-3.9%	-3.9%	-3.9%	-4.3%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7.15	'22.7.22	'22.7.29	'22.8.5		
						전주(7.29)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4,074.70	3,996.77	3,887.85	3,739.72	-3.8%	-25.9%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7.29	'22.8.3	'22.8.4	'22.8.5	'22.8.8		
							전일(8.5)비	'21년말비
BDI	2,217	1,895	1,731	1,603	1,560	1,566	+0.4%	-29.4%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협력 기관

